

학교와 마을

ON

텍트로

만나다

목차

프롤로그

- 04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란?
- 06 은평구 현황
- 07 은평 혁신교육 참여기관
- 08 2020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비전

민관학 거버넌스

- 14 민관학 거버넌스
- 1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평가
- 17 만나고 싶었습니다①
이희숙 은빛초 교장(실무협의회 위원장)

마을학교 교육과정

- 24 초3마을탐방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28 마을누림 프로젝트 은평구평생학습관
- 33 6·3·3마을 결합형전환기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 35 마을배움지원 '은혁이랑 배우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38 은혁이와 함께 하는 원격수업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41 마을결합중점학교 서부교육지원청
- 43 만나고 싶었습니다②
진세영 상신초 교사(실무협의회 위원)

진로

- 50 오감체험진로팡팡 도음사회적협동조합
- 52 은평대전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56 혁신가와 Vlog 협동조합 청청
- 58 청소년 이노베이션로드 진로컨소시엄
- 61 만나고 싶었습니다③
김은경 대학생(은평대전 멘토)

자치

- 66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청소년자치프로젝트
자치학교 유크 Youth Cracy 지식순환협동조합
- 70 은평청소년 자치활성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 74 청소년 친환경라이프 아망 갈현청소년센터 '쉽심'
- 77 만나고 싶었습니다④
최한결 청소년(갈현청소년센터'쉽심' 아망위원장)

심리정서

- 84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 87 미디어 시민교육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 88 아자아자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90 대안교육프로그램 '꿈채움'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92 생명 이끄미 마음컨택 상담센터
- 94 내꿈교실 은평교육복지센터
- 97 긴급지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00 만나고 싶었습니다⑤
박희정 학부모(실무협의회 위원)

민관학네트워크 활성화

- 106 교육적상상_교사상상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09 교육적상상_청소년상상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12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동아리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14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역량강화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16 민간네트워크 지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18 제4회 은평혁신교육축제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 122 만나고 싶었습니다⑥
김연미 학부모(학부모 위원)

에필로그

- 130 202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중점 운영사항
- 133 2021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비전
- 134 닫는 글
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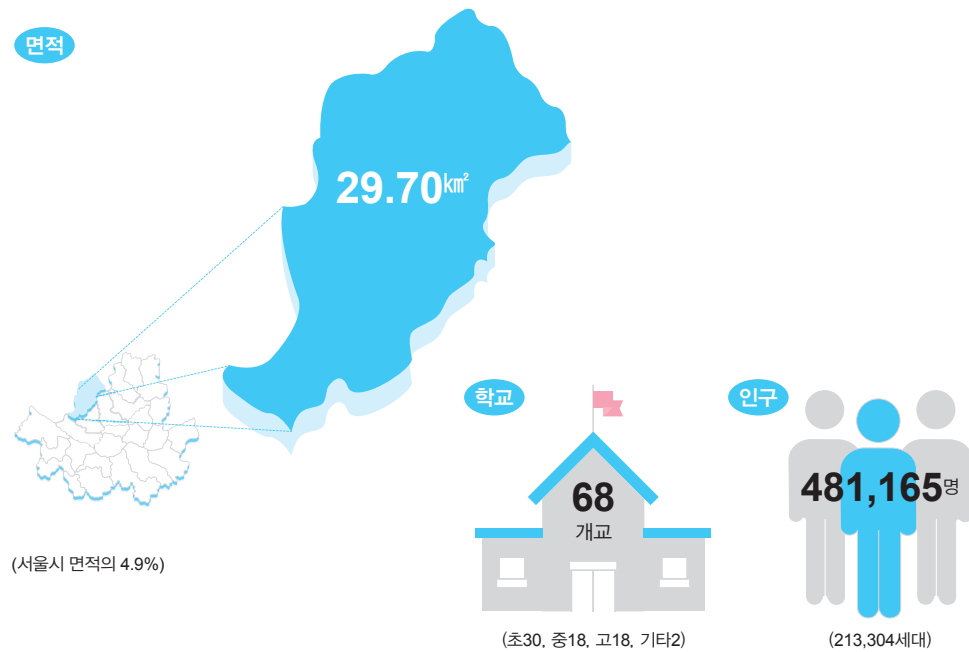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자치구

은평구 현황





Eunpyeong-gu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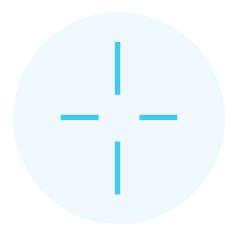
은평구 교육 현황

Education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기타학교
학교 수	68	30	18	18	2
학급 수	1,852	882	417	502	51
학생 수(명)	43,614	20,397	10,261	12,567	389
학급당 학생 수	23.55	23.12	24.60	25.03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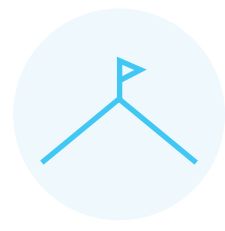
은평 혁신교육 참여기관





비전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



목표

민관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
교육주체의 자치(自治)활동 지원 강화
학교-마을 협력강화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내실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정서지원 체계 구축

중점영역	주요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①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②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학교 교육과정	③ 마을탐방 ④ 마을누림 프로젝트 ⑤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 ⑥ 마을결합 중점학교 ⑦ 마을 결합형 학교 교육과정 ⑧ 수업 방법 개선협력 강사
어린이·청소년 활동	⑨ 5·2·2 학급자치 ⑩ 자치학교 ⑪ 은평 청소년 자치 활성화 ⑫ 청소년 친환경 라이프 '아망'
	⑬ 오감체험 진로팡팡 ⑭ 은평대전 ⑮ 혁신가와 Vlog ⑯ 청소년 이노베이션 로드
심리정서	⑰ 미디어 시민교육 ⑱ 아(我)재! 아(我)재! ⑲ 생명 이끄미 ⑳ 초등상담 멘토 ㉑ 대안교육프로그램 '꿈채움' ㉒ 내꿈교실
	특수 학교 ㉓ 책 속세상을 보여줄게
코로나19 대응	㉔ 긴급 지원 ㉕ 은혁이와 함께하는 원격수업

2019~2020 은평혁신교육지구 성과지표별 평가 결과

성과지표	2019년 점수	2020년 점수	2019~2020 종합 평가점수	2019~2020 25개 지구평균
사업계획의 적절성	9.6	9.8	9.7	9.3
사업통합성과 연계성 정도	9.5	9.6	9.5	9.1
이전년도 평가 결과 환류	10	9.5	9.8	9.4
예산 집행의 적시성	10	9.7	9.9	9.5
정기적 점검체계의 구축	9	9.4	9.2	9.2
목표 공유	10	9.5	9.8	9.4
민관학거버넌스운영	9.8	9.7	9.8	9.2
마을과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운영	9.8	9.4	9.6	9.4
마을활동 지원체계 강화	9.6	9.5	9.6	9.2
청소년 자치활동	9.9	9.6	9.8	9.3
사업 효과성	10	9.6	9.8	9.0
코로나19 대응 사업 운영		9.7	9.7	9.6

2020 은평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 내용

분야	평가방법	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 운영	정량	수업방법개선협력 강사지원 30교(초14교, 중10교, 고6교)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운영 30교(초12교, 중10교, 고8교)
		초등상담 멘토지원 16교(초16교)
		마을자원자료집 제작 초3교과서 중등 마을알기 배움책 제작
	정성	마을결합형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교육의 장이 마을로 확대되었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향후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마을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 1회성 활동 지양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
마을활동 지원	정량	방과후프로그램 수 86개(참여인원 40명, 연인원 825명)
		마을배움터 수 21개
		마을교사 지원 수 441명
	정성	마을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되는 필수 및 심화교육실시
청소년 자치활동	정량	청소년의회 참여인원 대상인원 40명, 연인원 255명
		학급자치 지원 193학급 23개 동아리
		자치프로젝트 수 : 32개 32개
		제4회은평혁신교육축제 공연 21팀 연인원 1,543명
		청소년참여위원회 3개 분과 45명참여
	정성	청소년과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자치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활동 기획부터 실행, 후속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청소년 스스로가 제안함
		2020. 제2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최우수 수상
민관학거버넌스	정량	운영협의회(1개) 16명
		실무협의회(1개) 16명
		실무분과 (3개) 56명
		교육정책TF(1개) 11명
		구립기관컨소시엄(1개) 8명
	정성	은평혁신교육지구의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해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사업진단을 통해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설명회, 원탁토론 등을 통해 비전, 목표, 운영원칙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였음

민관학 거버넌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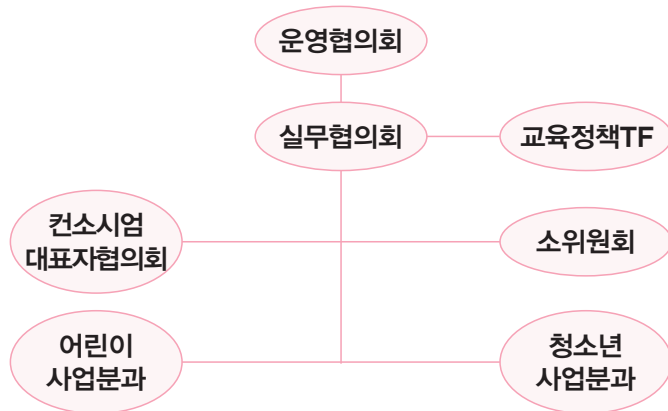
민관학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평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①
이희숙 은빛초 교장(실무협의회 위원장)

민관학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기간

2020. 02. ~ 2020. 12.

추진대상

민관학 교육3주체,
지역주민

사업내용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지원

추진배경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안정화를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의 토대 마련.

추진내용

구분	운영방법	참여자수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실무협의회(8회)	대면	99명	2020.02.-11.	사업논의 등
교육정책TF(3회)	대면	24명	2020.10.-11.	사업방향성 논의 등
사업분과 협의회(3회)	대면	35명	2020.06.-10.	사업분과 논의
사업기관 실무자협의회	대면	17명	2020.05.26.	사업실무 논의
은평혁신활동 발표회추진단(4회)	대면	45명	2020.08.-10.	은평혁신교육축제 기획 및 논의
은평학부모간담회 기획회의(3회)	대면	24명	2020.10.-11.	학부모 간담회 주제설정 및 운영기획
소위원회(16회)	대면	62명	2020.4.-11.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협의

평가

거버넌스 관련 사업 및 개요

- 운영협의회는 은평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장, 지역 구립 기관장, 민간대표 등 민관학이 참여하여 은평지역의 교육 현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함.
- 교육정책TF는 지역 현안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 구조로 3회 진행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
- 실무협회는 월 1회 개최, 안정적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기민하게 처리함. 위원장을 교원이 맡아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마을-학교의 유기적 연계강화에 기여함.
- 사업분과를 어린이, 청소년사업 분과로 구성하여 급별 맞춤 활동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쉽지 않았음. 이에 학부모위원, 교사지원단으로 구분하여 논의와 활동을 진행함 2019년에 이어 2년 임기로 위원을 위촉하여 단절되지 않은채 학부모위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 학부모위원들은 월1회 논의를 진행, 학부모동아리운영,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였으며 학부모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준비·진행함.
- 교사지원단은 초3교과서 수정·중등마을탐방 교과서 집필 및 코스 개발 등 활동을 진행함.

민관학거버넌스가 실제 사업운영 역할

- **기획** 2020년 사업계획 수립시 컨설팅과 평가를 기반으로 민관학 구조의 교육정책TF를 운영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 **진행**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 구청,지원청,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무 협의, 역할분담, 조율 등으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전개하였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걸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 며 실무협의회는 8월부터 사업 진행과 변경,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
여 차질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했음. 상황에 맞는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들의 실무자, 대표자 협의제도 가동함.
- **평가** 교육정책TF를 통해 5년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가 수행, 사업
주체 컨소시움과 학부모간담회, 교사간담회 등의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에 반영함.
- **의견수렴** 3회의 학부모간담회, 10회 교사간담회를 진행, 혁신교육
지구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마을-학교연계 방향을 논의하고 21년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음.

거버넌스 운영상의 지구 성과와 과제

- 6년차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거버넌스 논의는 안정적이며 참여
교사, 학부모는 마을-학교 연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동
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민관학 협의 구조를 통해 사업을 점검하고 진행하며 사업의 발전
방향, 교육전반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됨.
- 민관학 참여가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 구청의 혁신담당
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전체 업무의 논의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민 역시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
경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중간기관 시범운영을 통해 마을-학교 연계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졌
으므로 지속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희숙

은빛초 교장(실무협의회 위원장)

혁신 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교육청 정책 초기부터 참여를 하였고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 설계 과정에 참여했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오면서 숙련된 인재를 길러낸다거나 입신양명의 통로로 인식이 되면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교육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아이들의 행복도도 OECD 국가 중 최저고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을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혁신학교 정책을 만나면서 학교 안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꿈으로만 껴왔던 정책으로 미흡하나마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경험이었다. 혁신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과서 위주의 교육에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은평에서 생활은 오래하지 않았지만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구성과 운영과정을 지켜봤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서부교육청과 은평구청과 학교 주체들이 함께 만나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집단 지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주 바람직하다. 다만 은평구 안에도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나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좀 더 튼튼하게 민관학 거버넌스가 작동 되면 내실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실제로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학교 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민관학 거버넌스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나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학교 안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등)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공간과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별화되어있다. 공동체성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의 특성이 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적 물적 공간 자원이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접목된다면 교육활동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계성이 부족하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살고있는 삶의 터전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추구하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뀐 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아이들, 부모, 학생들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초창기에는 상황 변화에 맞추느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논의와 판단과 실행이 총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1년을 경험하다 보니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원격수업을 해보았는데 역시 아이들은 등교수업이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의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

을 아예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종일 미디어에 의지하여 원격수업을 하느라 아이들 성장을 저해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공교육이 가정이나 문화적 배경을 최소화하면서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 학습격차가 심해졌다. 부모의 관심도나 가정상황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등을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빛은 학교 운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역시스템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다.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 매일 하는 대면상담 등을 할 수 없었다. 학교 소식과 운영을 매일 한번씩 소식지를 보내드려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줌으로 희망하는 학부모들과 학부모 간담회도 개최했다. 학부모들의 궁금증, 제안 등을 설문을 통해 소통했다. 학부모 연수도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서 제한된 조건에서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참여하시면서 생각 나는 것이 있다면? 좋았던 것 인상적이었던 것 등을 말씀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도담도담 마을학교’라는 사업방식을 구상하고 시작한 것이 의미있었다. 교사간담회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도 좋았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청소년 삶에 대해 무엇을 지원, 주목해야 하는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은 사실은 부모가 충분히 가정에서 한 사람이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 등을 운영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을 소수인원으로 관리하면서 가정도 방문하고 학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입체적으로 돌보고 지원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도담도담 마을학교는 참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정서, 장애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에 했던 중간지원조직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혁신교육에 대해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교사분과나 학부모 분과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 안에서 스스로 고민한 내용들을 운영할 주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간담회는 담당자들과 하되 간담회 운영에 대한 고민도 분과 내에서 고민을 함께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까지 고민을 해보면 좀 더 풍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6년여동안 많은 성과를 내왔다. 그동안에는 1년단위의 사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그 안에서 마을이 진정한 마을 배움터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일상적인 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는 1회성 프로그램을 수혈받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교육과정을 좀 더 연계된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마을 단위 거버넌스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교사들이 왜 마을과 연계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학년별로 1-5학년은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6학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하고 싶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마을-학교 교육과정

1-6

초3마을탐방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누림 프로젝트 은평구평생학습관

6·3·3 마을 결합형전환기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마을배움지원 '은혁이랑 배우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혁이와 함께 하는 원격수업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결합중점학교 서부교육지원청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②

진세영 상신초 교사(실무협의회 위원)

초3 마을탐방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02. ~ 2020. 12.	초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중등부	마을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별(역사,문화,마을공동 체,사회적경제) 탐방

추진배경

은평구 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마을탐방 지원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환경 조성.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은평구 내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탐방지 탐방 진행	2020. 10. 21		46명
	2020. 10. 23	마을공동체 (향림마을)	48명
	2020. 10. 28	도시농업체험원	46명
	2020. 10. 30		24명
세부내용	활동일자	탐방주제	촬영 장소

삼천사

역사문화

금암기적비

스프링샤인
(구_지노도에)

사회적경제

약속의자전거

향림마을
(도시농업체험원)

마을공동체

물푸레 북카페

초3 마을탐방
온라인 영상 제작

2020. 8. ~ 2020. 12.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
니다.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진행
하였는데, 마을탐방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
행을 해야할까 많은 고민이 있다. 또, 청소년
들을 많이 못보고, 온라인으로 진행해 아쉬
움이 많다. 2021년에는 다 같이 모여 마을을
탐방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해 상·하반기 탐방 진행에서
하반기로 변경 및 6개교 신청 중 대조초 1개
교만 진행 하였다.
참여 학교가 감소되어, 진행한 학교에 대해
버스비를 지원하고, 간식비 및 체험비를 지
원 확대 하였다.
또한 마을탐방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교
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마을탐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을탐방 영상을 추가
로 제작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온라인이 장소 상관없이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해 피로감
이 높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천사



금암기적비



스프링샤인



약속의자전거



향림마을(도시농업체험원)



마을기업 물푸레 북카페

초3 마을탐방 코스

역사문화

- 탐방길 ① 진관사 ~ 배후철소남이 이야기
- 탐방길 ② 민합매나석상 ~ 금암기적비

사회적경제

- 탐방길 ①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탐방길 ② AUD 사회적협동조합
- 탐방길 ③ 스프링샤인 (구 노는도)
- 탐방길 ④ 약속의자전거
- 탐방길 ⑤ 노는엄마협동조합

마을공동체

- 탐방길 ① 향림마을 ~ 도시농업체험원
- 탐방길 ② 녹번 ~ 음암산골마을
- 탐방길 ③ 고리마루마을활력소
- 탐방길 ④ 물푸레 북카페
- 탐방길 ⑤ 구산동도서관마을

초3 마을탐방이란?

사업목적

- 은평구 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마을탐방 지원
-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은평구 초등학교, 주민
- 사업내용 :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별 (역사·문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탐방

사업효과

- 마을-학교의 연계를 통한 배움으로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동체 의식 증진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자원 연계 강화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 내 활동기반 마련

초3 마을탐방 지도

내가 다녀온 곳은 □ 안에 체크해볼까요?

역사·문화 탐방길 ①

- ☐ 진관사 ~ 배후철소남이 이야기

역사·문화 탐방길 ②

- ☐ 민합매나석상 ~ 금암기적비

마을공동체 1 탐방길 ①

- ☐ 향림마을 ~ 도시농업체험원

마을공동체 1 탐방길 ②

- ☐ 녹번 ~ 음암산골마을

마을공동체 1 탐방길 ③

- ☐ 구산동도서관마을

마을공동체 1 탐방길 ④

- ☐ 물푸레 북카페

마을공동체 1 탐방길 ⑤

- ☐ 노는엄마협동조합

마을누림프로젝트

은평구평생학습관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01. 15. ~ 2020. 12. 31	지역주민 초등학생 탐방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고학년까지 포괄하는 은평마을탐방 안내서 제작 ○ 은평 마을탐방길 코스 추가 개발 및 마을 강사 자체 역량강화 연구모임 운영 ○ 은평마을탐방 안내서 영역별 주제 영상 및 신규 마을탐방길 소개 영상 제작 ○ 신규 마을탐방길 코스 모의 수업 운영

추진배경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초3사회과 지역화교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2019년 ‘함께 사는 은평’ 초3사회과 지역화교재를 개발함. 이후 초등 고학년(3~6학년)을 포괄하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마을탐방 교육자료의 수요에 따라 초등고학년 교사를 위한 마을탐방 안내서를 제작함. 또한 다양한 마을탐방길 추가 개발의 필요와 ‘2019.마을탐방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탐방강사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활동차수	활동인원
은평마을탐방 안내서 제작	2020. 02. 20. ~ 2020. 12. 07.	기획회의(총4회) 집필 및 편집활동(총12회)	마을전문가 4명 교사 3명
은평마을탐방길 추가 개발 및 탐방강사 자체 역량 강화 연구모임	2020. 04. 09. ~ 2020. 05. 14.	OT 및 주제교육(총5회)	탐방강사 10명 주제별 교수자 및 멘토 4명
	2020. 05. 28. ~ 2020. 12. 09.	연구모임 및 현장 답사(총10회) 마을강화 역량강화교육(총1회)	
은평마을탐방 안내서 및 은평마을탐방길 영상 제작 (*코로나-19 대응)	2020. 08. 14. ~ 2020. 10. 10.	영상 기획회의(총1회) 마을탐방안내서 영역별 영상촬영(총4회)	마을위원 4명 크리에이터 1명
	2020. 08. 18. ~ 2020. 09. 18.	영상 기획회의(총1회) 신규 탐방길 소개 영상촬영(총3회)	탐방강사 6명 크리에이터 1명
신규 마을탐방길 모의 탐방 수업 운영	2020. 11. 04. ~ 2020. 11. 06.	주민대상 역사문화 모의 탐방 수업 운영(총2회)	탐방강사 4명 멘토강사 1명 학습자 17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은평구평생학습관은 2015년 교사 대상 마을이해 연수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학생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 2017년 학생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및 교과과정 연계 ‘은평마을알기 보드게임’ 개발 운영, 2018년 교사용 지도서 ‘초3 사회와 지역화 자료 개발’, 2019년 마을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초·중·고 3학년 대상 ‘함께 사는 은평’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및 마을 탐방강사 양성 등 해를 거듭하며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아이들에게 삶터와 배움터가 조화되는 전인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어 왔다. 2020년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학습환경을 꿈꾸며 교사들과 마을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마을 연계 콘텐츠의 교육적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구모임 조차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초·중·고 학교의 예정 없는 휴교 발표에 초등 대상 마을탐방 시범운영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초등 대상 마을탐방 시범운영은 마을전문가와 교사 주도로 제작되는 은평마을탐방 안내서와 마을탐방 강사들의 연구모임 주도로 개발하는 신규 마을 탐방길 코스를 적용해 보는 탐방 수업으로 초등생 모집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할 플랜B를 준비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익숙한 언택트 일상에서 벗어나 온택트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꾸준히 연구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온택트 모임에 익숙해지면서 난제였던 초등 마을탐방 시범 수업에 대응할 방안들도 ‘함께’ 구상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학습자료와 주요 탐방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 E-book과 영상을 제작했다. 당초 책자로 제작할 경우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 온라인 학습자료는 마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 하려는 민관학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긴밀한 ‘연대’로 이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상생의 힘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마을교육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며 어둡지 않은 내일을 꿈꿔본다.

코로나19 대응사례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대면 방식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장기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연구모임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는데 20년 사업은 연구모임이 기본이라 모이지 않고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후 대면으로 운영해 오던 연구모임을 온라인으로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탐방 수업을 온라인 마을 탐방 영상으로 제작해 보자는 의견이 모였다. 아이들이 마을 자원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받고 간접적 탐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중심 탐방지를 선정하여 영역별(역사·문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생태환경) 영상 제작과 추가 개발된 신규 마을탐방길 코스 소개 영상을 제작했다. 기획부터 스토리, 출연까지 마을위원과 탐방강사들의 노고가 담긴 의미있는 영상이었다. 안내서는 디지털 E-book으로도 제작했다. 편의 제공을 위해 해당 탐방지에 제작한 영상을 삽입해 은평 마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활용할 있도록 공개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돌봄’이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교육에서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차상위층을 위해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 3학년까지 정규 수업 이후에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하지 않은 운영과 돌봄 공급 부족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육·놀이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방식이라 양질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음으로 개발한 지역화교과서와 ‘은평마을 요기조기’ 은평마을탐방 안내서는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이들이 삶의 터전(마을)과 배움터(학교)가 조화된 양질의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 지도서 활용과 더불어 넓게는 마을교사(마을탐방강사)들이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의 활용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뉴노멀시대 새로운 방식과 시도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은평교육콘텐츠협의회)

사업기간 2020. 11. 01.~2020. 12. 20.	추진대상 은평구 초, 중, 고등학교	사업내용 6·3·3 마을결합형전환기 지원사업
--	-------------------------------	---------------------------------------

추진배경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급별 전환기 프로그램 지원.
졸업학년을 맞은 학생들에게 심과 다음을 준비할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추억을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6·3·3 전환기 마을결합형 지원	2020. 11. 01.~2020. 12. 20.	학교	학교 23명 학급 148명 학생 3465명 마을교사200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 상황에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개 학교가 신청하였고, 대면교육위주로 진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감염병으로 학교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유하여 온라인 교육준비를 통해 대비하였다. 또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학교상황에 맞추어 마을교사들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학교상황에 마을교사들이 민첩하게 대응하여 수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학교에 재료를 전달하고, 온라인교육을 제공하여 10년동안 이어온 마을교육의 경험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코로나19 대응사례

학교선생님도 다음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갑자기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이 하교하기전 마을교사들이 급하게 재료를 전달하여 재료를 가지고 하교를 할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제공하여 일정대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교육제작은 동일한 ppt를 제공하여 마을교사들이 ppt에 자신의 콘텐츠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쉽지만 일정한 수준의 동영상 강의가 나올수 있도록 하였다.

긴박한 상황에서 학교와 마을교사들 모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추가로 더 수업을 신청한 학교도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감염병이 긴 시간 지연되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력격차뿐만 아니라 신체활동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체력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하고 있다.

사회적거리와 방역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인원모집을 통해 체력증진 활동 및 학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마을결합형 전환기의 최종 비전은 일주일은 마을에서 한학교씩 맡아서 마을여행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 것인데 감염병 상황으로 신청한 학교 중 취소한 학교도 있었지만 온라인교육의 대응이 잘 되자 추가로 신청한 학교도 있었다.

대면으로 어려운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도 있어 감염병 상황이 지연될 때 오프라인 온라인을 잘 결합하여 강점을 최대한 발휘 할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겠다.

마을배움지원 '은혁이랑 배우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11. 1. ~ 2020. 12. 31.	대상 은평구 관내 아동·청소년 및 마을강사	아동·청소년 마을배움 활동 지원

추진배경

학교-마을 연계를 통해 소규모 형태의 배움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장기간 이루어진 온라인 학습으로 지친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을 자체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정있는 마을강사를 모집.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마을강사 모집	2020. 11. 9. ~ 2020. 11. 16.	은평마을방과후 지원센터	개인 & 단체 70팀 지원
마을강사 심사 및 선정	2020. 11. 17. ~ 2020. 11. 19.		
마을배움 운영 및 지원	2020. 11. 20. ~ 2020. 12. 29.	수업내용과 부합하는 장소 개별 대관	강사 60팀 아동, 청소년 약 550명
지원종료 및 활동보고서	2020. 12. 30. ~ 2020. 12. 31.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마을 자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는 것을 볼 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을연계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은 관내의 다양한 '마을강사'들이었다.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교육수준과 역량에 맞게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업에 알맞은 장소를 직접 대관하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능동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덕분에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출발한 본 사업의 목적을 일정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강사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시간,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본 사업도 그 필요성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무조건 규모가 작은 배움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업 안에 많은 아이들을 담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소규모 수업을 개설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강사들이 겹치는 내용 없이 모두 다른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교사가 더 질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료비도 함께 지원했다.

작은 모니터 속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 아이들은 그렇게 삼삼오오 작게 그룹을 이루어 마을 강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배움'에 있어 혼자 습득하고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사업을 마치며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배움의 기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학교 교과운영에 대한 학습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친구, 교사와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배워나갈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아쉽다. 경험과 체험이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에 시기적으로 체험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사업의 내용이 학교와 학부모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활성화하면 더 많은 혁신사업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마을 곳곳에서 배움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본 사업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향후의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사업기간이 보다 길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을 강사의 자율성과 수업을 듣는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은 자유롭게 정하되 학기중, 방학중에도 교육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수적으로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강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자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점을 배우고 소통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강사들의 연구심과 열정의 시간들이 모여 혁신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은혁이와 함께하는 원격수업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10. 08 ~ 2020. 12. 26	은평구 내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학습 일정에 맞춰 온라인 학습지원 및 활동 지원

추진배경

- 코로나 기간 중 기초학습 능력이 미흡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세밀한 교과 지도가 가능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
- 관내 학교와 도서관 등 기관의 연계 지원을 통하여 '마을교육체계'의 확립을 도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학교 안내(교육지원청)	2020. 10. 8. ~ 2020. 10. 9.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강사 및 기관 모집	2020. 10. 16. ~ 2020. 10. 20.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 학교 준비 기간	2020. 10. 21. ~ 2020. 10. 22.	은빛초등학교 응암초등학교	교육강사 3명 마을강사 14명 초등학생 28명
마을 학교 운영	2020. 10. 26. ~ 2020. 12. 24.	은평 복지관(마을기관)	
사업 평가	2020. 12. 22. ~ 2020. 12. 26.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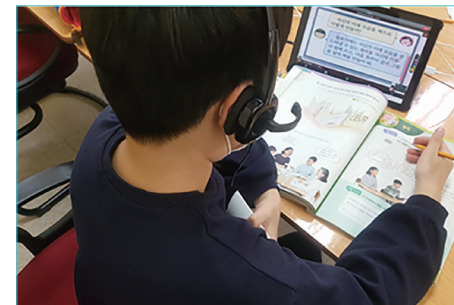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학교 온라인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남겨지는지 현장속으로 들어가 학생들과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코로나가 가져온 교육 환경의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실제로 '한 명도 빠짐없이'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었다.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습의 효과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과 마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등교하지 않았던 텅빈 교실에 '마을강사'가 투입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어 주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본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수업방식에도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지속적인 등교가 어려워지고 어린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학습 격차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학교와 학생, 마을 강사가 대면하여 각기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려고 계획했으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원격수업 방식으로 모든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 자체가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일별로 텅 비게 된 학교 교실을 다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은혁이와 함께하는 원격수업'이었다. 외부인이 교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학교와 마을기관의 긍정적인 승낙으로 우려와는 다르게 '마을교육협력체제'가 금방 구축되었다. 오전시간 마을 강사들이 학생을 만났으로써,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수의 학생들이 다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학급에서 마스크 없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수업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보는 날이 금방 오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등교할 수 없는 일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모니터 속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온라인으로 일괄 수업을 듣는 동안 벌어지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숙제처럼 남게 된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마을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혁신사업’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는 주요 교과과정 이외에도 생활지도 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마을 강사들이 구축되어서 수업지도 외에도 아이들의 심리정서 발달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지원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마을강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지원하고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교사는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학교는 등교할 수 없는 날에도 학생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니 모두에게 ‘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를 낳으려면 ‘학교’의 지원과 협력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본 사업의 경우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사’, ‘학생’, ‘마을강사’가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나누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에서 장소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마을결합중점학교

서부교육지원청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추진대상

은빛초
선일여중
충암중
선정국제관광고

사업내용

- 실천적 배움이 있는 수업 혁신
- 학교 단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한 아이도 빠짐없는 통합 지원
- 학교-마을 협력 확대로 지역교육 현안 해결

추진배경

학생 삶의 현장에 기반한 전면적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운영.
학교-마을 협력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학생 성장 지원.



추진내용

학교명	활동내용
은빛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속 생태 수업(앵봉산, 이말산, 학교숲, 향림도시농업체험원) ○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을 돕는 놀이체육(1, 2학년) ○ 온라인 학습 지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 마을 기관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 ○ 학교-가정과 함께하는 로봇축구 페스티벌 ○ 마을교육과정소위원회 운영
선일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년제 마을 연계 프로그램(3D아트, 우쿨렐레) ○ 마을 연계 동아리(오케스트라, 댄스, 뮤지컬) ○ 마을 연계 진로활동 ○ 기초학력향상 지원 ○ 학교 단위 거버넌스 운영
충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마을 연계 프로그램(독서, 마을탐방) ○ 마을 연계 동아리(기후) ○ 마을 연계 진로체험 ○ 기초학력 학생 지원(과학 교과 협력교사, 대학생 교육봉사) ○ 마을 연계 힐링 프로그램 (학부모, 교사 대상) ○ 학교 단위 거버넌스 운영 ○ 마을코디네이터 근무
선정국제관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 드림 독서 ○ 온라인 스쿨(언론 동아리 학생 대상)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전문 상담사) ○ 은평구 명소맵 제작(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램 활용)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호텔 식음료 교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손뜨개 교실 ○ 마을결합중점학교 학습 공동체

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걸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진세영

상신초 교사(실무협의회 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예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7년,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마을결합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사실 혁신교육 사업인 줄도 모르고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많이 다니고 싶은 선생님은 연락 달라’는 연구부장님 메시지를 보고 하겠다고 무작정 신청을 했다. 혁신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알고 시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일단 마을이라는 주제와 예산이 생기니 학생들과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이 떠올랐다. 우리 마을 소개 리플렛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학생들과는 마을의 맛집과 좋은 장소들을 탐방하고, 소개 자료를 만들고, 마을 축제에 다녀오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3학년 사회과 공부를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탐방 계획과 예산, 학부모님의 협조도 적절 해 내고, 활동을 하고 난 결과를 PPT를 활용해서 즐겁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결과물인 리플렛을 만들 때는 많이 힘들긴 했지만(웃음) 결과물이 잘 나왔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뿌듯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이렇게 1년만 했었는데, 이 활동을 시작으로 교사지원단이 나 은평구 마을교과서 집필 등의 활동도 하게 되고 민관학 거버넌스에도 참여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다.

혁신교육이란 좋은 ‘판’ 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이 되고,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해 보고 싶은 선생님에게는 기회로서의 판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2018년 처음 참여했을 때는 민, 관, 학에서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사 입장에서는 같은 혁신교육인데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아 혼란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 관, 학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없애기도 하고 각자

의 활동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자주 만나면서 사업 안 내도 한층 심플해져서 이해도 신청도 쉬운 것 같다. 작년을 떠올려보면 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님,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팀장님, 장학사님께서 정말 자주 모여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각종 회의에 교사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민관학이 모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점과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느꼈다. 민에 속한 단체나 강사님들께서 2020년 연말에 모인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2021년에는 그 부분도 보완하기로 하시는 것도 지켜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은평은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혁신교육을 접했을 때 혁신교육과 마을이 거의 동의어 관계라고 느꼈다. 마을에 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 이해했다. 다만 내가 학교에 속한 교사이다 보니 학교를 가장 중심에 두고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마을을 ‘통한’ 교육에 중점을 맞췄다. 그런데 민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다 보니 마을의 참여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과, 혁신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넘어 마을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혁신교육을 통해서 은평의 학생들 뿐 아니라 마을 강사, 교사, 학부모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혁신교육과 마을은 상생하는 존재이자,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다른 해랑 좀 다른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을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뀐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모임도 약속도 못 나가면서 연말쯤 되니 완전한 집순이가 되어버렸다. 물론 그래서 편안하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웃음). 그래도 이런 말이 복에 겨운 소리라는 것쯤은 안다. 여기저기서 힘들게 코로나 시국을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웠다.

학교 현장도 쉽지 않았다. 지침들이 계속 변하고, 그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계속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무언가를 계속 바꾸고, 새로이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 기자재를 사는 등 바쁘고 힘든 분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웠다. 모둠활동도 친교활동도 못하고 마스크를 쓴 얼굴만 1년을 보고 헤어졌다. 그래도 얼굴을 본 게 다행이지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날이 훨씬 많았어서 더더욱 아쉽다. 은평컨텐츠 사업을 포함해 외부강사가 오시는 주시는 활동, 학생들이 나가서 체험하는 활동 등을 무척 선호하는데 그런 활동 또한 많이 위축되어서 여러 모로 안타까웠다.

참여하시면서 생각 나는 것이 있다면? 좋았던 것, 인상적이었던 것 등을 말씀해 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3학년 탐방활동도 끝까지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추진하지 못해 생긴 예산으로는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콘텐츠들을 개발했다. 원격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마을의 작은 공간들을 열기도 했고,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상담의 기회도 제공하고, 혁신교육축제도 온라인으로 도전하여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학교의 참여 독려를 위해 학교 하나하나에 연락을 하시는 모습, 연말에 은평구 전체 교감선생님과 초중고 업무담당 선생님들과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청소년 삶에 대해 무엇을 지원, 주목해야 하는가?

예체능 분야와 심리정서 부분의 지원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 참여나 향유 기회가 크게 차이는 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체능인데, 다양한 예체능활동과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줄였으면 한다.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의 취미나 여가활동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작게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도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선배 선생님들께서 심리정서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말씀하신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참 많은데, 아직 학생들을 도울 기반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도움을 주거나, 평소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나 공간 등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 등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은평대전같은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발전, 확장했으면 좋겠다.

혁신교육에 대해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관학이 함께 지금처럼 노력하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21에 계획하신 것처럼 교사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전하고 공문 말고도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만들어서 은평 안에서도 학교별, 담당교사별 편차가 줄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만의 활동 말고도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에서의 활동-마을 탐방이나 마을의 공간 활용,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키트 등-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면 좋겠다.

진로

1-4

오감체험진로팡팡 도움사회적협동조합

은평대전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혁신가와 Vlog 협동조합 청청

청소년 이노베이션로드 진로컨소시엄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③

김은경 대학생(은평대전 멘토)

오감체험 진로광판

도움사회적협동조합

사업기간

2020. 03. 01. ~ 12. 31.

추진대상

은평구 중학교
1학년 4000명

사업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 운영

추진배경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개최를 통해 폭 넓은 직업관과 미래관을 고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	2020. 02. 01.	서면	20
사업운영	2020. 03. 01. ~ 12. 31.	은평구 관내 18개 중학교	3800
사업종료 및 평가	2020. 12. 31.	서면	20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박람회 <오감체험 진로광판>은 기성교육의 틀 안에서 벗어나 참여학생으로 하여금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폭넓은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평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프로그램 식으로 제공하여 놀고 즐기는 과정속에서 생소한 직업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더욱 더 다양한 미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역경이 있었지만, 개인 방역의 강화 및 학생들의 질서속에 무사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일부학교는 온라인 화상수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속에서 의도치 않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역량강화가 있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체험위주의 교육 또한 다양한 채널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 아주 당연한 소통의 방법이지만 코로나19를 겪은 이시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되어버렸다. 소통의 기회는 더 줄어들어 버렸구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구상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은평대전

은평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1. 31.~2020. 12. 31.

추진대상

중학생 5,686명
고등학생 23,752명
대학생 2,578명
성인 201명
총 32,217명

사업내용

- 대학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 조별교육
- 찾아가는 교실 전공강연
- 온라인 전공 박람회
- 협의체 운영(대학생멘토 기획단, 일반고교사협의체)

추진배경

- 은평구에는 14세~19세 기준 약 2만9천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
-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에 맞닥뜨리며 학과선택이라는 또 다른 갈등과 고민 발생
-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간판과 성적에 초점을 맞춘 대학진학에 대한 문제점 발견.
-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여 방황하거나 유턴입학(전문대 입학)을 하는 경우 발생.
- 은평구에서 성장한 대학생과의 만남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 탐색해보며 올바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로·진학 지원 사업 '은평대전' 운영.



진로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대학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20.05.23.	온라인(ZOOM)	195	
	20.05.25.	은평진로센터	6	
대학생 온라인 조별교육	20.08.12.~20.08.29.	온라인(ZOOM)	104	
찾아가는 교실 전공강연	20.07.24.	온라인(ZOOM)	389	
	20.07.29.	은평고등학교	388	
	20.07.31.	송실고등학교	342	
	20.08.03.	선정고등학교	777	
	20.08.05.	선일여자고등학교	574	
	20.08.06.	영락중학교	564	
	20.10.05.	상신중학교	363	
	20.10.13.	충암중학교	554	
	20.10.23.	연천중학교	358	
	20.10.28.	동명여자고등학교	225	
	20.10.29.	충암중학교	593	
	20.11.11.	상신중학교	354	
	20.11.12.	구산중학교	1,040	
	20.11.13.	선일여자중학교	423	
	20.11.17.	상신중학교	359	
은평대전 온라인 전공박람회	20.11.21. ~ 10.12.31.	온라인(은평대전 홈페이지 www.epdj.co.kr)	24,250	
협의체 운영	대학생멘토기획단 1차~6차 회의	20.01.30. ~ 20.10.23.	은평진로센터 온라인(ZOOM)	180
	대학생멘토기획단 자체회의	20.05.05. ~ 20.12.31.	은평진로센터 온라인(ZOOM)	163
	일반고교사협의회 1차 회의	20.10.21.	은평진로센터	10
	일반고교사협의회 교사특강	2020.10.28.	은평진로센터	6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올해 7회를 맞이한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은평대전은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의 온라인화와 시스템 운영에 대해 은평대전 협의체와 담당자들이 수없이 고민하고 경험해보며 자체 매뉴얼도 제작해 놓았다. 온라인 전환이라는 상황을 처음 겪다보니 마음고생도 꽤나 했던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평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230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모집되었고 강원도, 부산에서 참여를 희망하여 온 대학생들도 있었다. 열정 가득한 그들과 대면 만남을 기대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결국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은평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은평대전에 대해 소개를 했고, 2회 이상 대학생 멘토 조별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전공강연을 위한 자료제작(강연PPT, 학과 소개 요약본), 모의강연을 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은평구 중·고등학교 교실에 대학생 멘토가 찾아가 전공강연을 진행하였다. 올해 중학교까지 사업대상이 확대 되었으나 코로나로 강연일자 연기 및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학생 멘토들이 강연을 많이 나가지 못해 아쉬웠다. 처음 참여해보는 대학생 멘토들이 대다수였기에 강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싶었으나 상황의 제약으로 불가했던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다. 그렇지만 대학생 멘토들의 강연참여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왔다. 강연을 위해 전공하고 있는 본인 학과를 심도 깊

게 탐색함에 따라 스스로 진로설정의 재인지 기회를 가졌고, 마을 후배들에게 본인의 학과를 알려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박람회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 달 간 운영을 했었는데 은평구를 넘어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온라인상에서 대학생과 1:1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전공상담은, 청소년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진행되었기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이 각자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여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1:1이었기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204명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했으며, 재참여 의사가 1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다. 90%도 아니고 100%라는 결과로 사업의 실효성을 증명했고 담당자로서 큰 사명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7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청소년 진로·진학 정보 제공하는 '은평대전'은 사업 효과성이 매우 뛰어난 은평구 대표 청소년 사업이라 생각된다.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청소년 멘티가 대학생으로 성장하여 은평대전에 참여하고, 모교를 찾아 멘토링 활동을 하는 성장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마을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나눔과 베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사례

대규모 대면활동이던 은평대전 사업이 올해 코로나로 온·오프라인 병행을 하게 되었다. 4~5월경 대학생 멘토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조별 심화교육을 대면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대면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한 두 차례 진행일자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폭으로 결국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 번도 시도해 본적 없는 실시간 원격 시스템에 대해 대학생멘토기획단과 같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며 사용법을 익혀 나갔고 그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기획단 내에서 로봇, 컴퓨터 관련 학과 학생이 있어 그 친구들이 리드했기에 문제없이 오리엔테이션과 조별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 전공강연은 학교별 욕구를 반영하여 순환등교 때 온라인(ZOOM) 원격으로 전공강연을 진행한다거나, 대면 진행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진행하였다. 상황에 맞춰 사업이 진행 되었고 기획단

과 수시로 온라인 회의를 하여 내용을 공유했다. 언제 또 상황이 나빠질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교사협의회와 충분한 논의 끝에 전공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 달간 운영을 했으며 대학생 멘토와 학생 멘티가 1:1로 학과상담을 진행, 진로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들을 상영(개막관, 졸업생 재학생 인터뷰, 교사인터뷰, 전공강연, 대학생이야기—공부법·입시준비법, 대학생활동 Vlog), 협조 받은 영상(일반·특수대학교 홍보영상, 은평구 특성화고등학교 홍보영상, 학과 탐색관련 유튜브 영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시영상 등), 이벤트 등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1:1 실시간 전공상담은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주었으며, 참여 만족도 조사결과 대학생 멘토 95%가 코로나상황에 알맞게 대처하였다는 답변을 주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시기에 온라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흘러넘친다. 하지만 검색하는 방법과 사이트별 가지고 있는 정보의 특색을 모른다면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은평구 청소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라면 선별적 제공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되었으면 한다. 일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것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꾸준한 홍보·관리를 통해 은평구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혁신가와 Vlog

협동조합 신청

사업기간

2020. 04. 01.~2020. 12. 31.

추진대상

은평구 중/고생 및 보호자,
교사, 기관 관계자 등 700명

사업내용

은평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3개 기관의 사업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공유
하는 청소년 주도의
네트워크 공개방송

추진배경

지역자원, 프로그램 온라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영상 아카이빙	2020.04.01.~2020.11.30.	참여 업체 사무실 등	100명
청소년기획팀 모집	2020.10.01.~2020.11.30.	온라인	30명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TF회의	2020.09.01.~2020.11.30.	온라인, 은평진로센터 등	10명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유튜브라이브 스트리밍	2020.11.03.~2020.11.03.	온라인	현장 30명 온라인 500명 영상참여자 30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려워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행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아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관객으로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은 작년처럼 현장 직관한 것이 아닌 온라인(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본 행사를 볼 수 있었고 사업 초기 기획부터 아카이빙, 청소년기획팀 운영 등 실행 해왔던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진로사업 아카이빙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 촬영에 임하였다.

청소년기획팀과 콘소시엄 기관 TF팀도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대면 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최종행사의 참여를 온라인으로 한정하여 행사에 꼭 필요한 인원 외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온라인 참여자는 행사 중 300명 이상 집계되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아동, 청소년이 비대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력이 상당히 빨라 참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으나 인프라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PC가 없으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봐야 하는 데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이노베이션로드

진로컨소시엄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04. 01.~2020. 12. 31.	은평구 중, 고등학생 1,300명	서울혁신파크를 활용한 신직업체험 및 vlog제작 등 크리에이터체험

추진배경

- 서울혁신파크를 활용하여 혁신가들 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창직 체험을 통해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함.
- 신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체험하고 올바른 영상제작 방법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혁신가들 인터뷰	2020.04.01.~2020.11.30.	참여업체 사무실 등	50명
진로특강(제작된 영상)	2020.10.01.~2020.11.30.	온라인	700명
VLOG 교실 운영	2020.04.01.~2020.12.20.	온라인	450명
[실전] 유튜브라이브 스트리밍	2020.11.03.~2020.11.03.	온라인	100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19년도는 동일사업이 오프라인이었으나 20년도는 첫 시작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vlog크리에이터 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부터 온라인으로 과감하게 진행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과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며 진행했던 수업은 비대면이었지만,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 한 줄기의 희망과 같았다. 혁신가와 진로체험은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했기에 시작이 늦어졌으나 지체할 수 없어 오프라인 예산을 온라인 영상제작으로 변경하여 진로특강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맞추어 한 발짝 다가가는 데에 성공하였다.

코로나19 대응사례

vlog 크리에이터 사업 40회 강의를 전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화하였다. 혁신가와 진로체험을 비대면 온라인화하기 위해 참여업체와 진로특강 영상을 제작하였고, 오프라인 활동이 안되는 만큼 학교 등에 영상을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온라인의 장점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점 덕분에 참여한 학생 수는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디지털 시대에 적응력이 상당히 빨라 참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으나 인프라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비대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3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걸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김은경

대학생(은평대전 멘토)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1~3학년때 '은평대전'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전공강연 하러 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당시 '아 나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강연하러 오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고3 담임선생님이 수능이 끝나고 은평 대전 신청서를 주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전공지식을 중,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해 폭넓은 전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은 은평구 친구들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은평은 현재 제가 느끼기에 민관학거버넌스가 많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대전'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은평구의 여러 단체가 학생들에게 드론, 베이킹 클래스, 기자단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들과 '은평대전' 사이에서 전공강연 박람회, 전공강연 등을 통해 학교와 은평구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발전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등)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혁신교육과 마을은 공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자체에서 학생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다른 해랑 좀 다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대처한 부분, 바뀐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휴학을 한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4학년 상반기를 휴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바디프로필도 도전하여 113일 동안 13kg을 감량하면서 산업안전기사를 같이 취득하였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존감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취준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좋았던 것 인상적이었던 것 등을 말씀해주세요.

2020년 처음으로 은평대전에서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도 전공강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교 친구들의 심도 깊은 질문들을 받았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연하는 시간 만큼은 친구들이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아이스브레이킹을 많이 하는데 집중하는 눈빛들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치

1-4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청소년자치프로젝트

자치학교 유크 Youth Cracy 지식순환협동조합

은평청소년 자치활성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 친환경라이프 아망 갈현청소년센터 '쉽쉽'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④

최한결 청소년(갈현청소년센터 '쉽쉽' 아망 위원장)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청소년자치프로젝트

자치학교 유크 Youth Cracy

지식순환협동조합

사업기간

2020. 08. 13.~2020. 12. 25.

추진대상

관내 청소년(중·고등학생)
- 은평구 청소년 의회 의원
37명

사업내용

청소년들의 자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청소년의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

추진배경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신의 삶과 지역문제에 관련된 자치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은평 청소년 대상 자치 프로젝트를 추진함.



자치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교육자료 개발	2020. 08. 13.~2020. 10. 01.	지순협 강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4명 (지순협 기획팀)
프로젝트 활동북 개발	2020. 08. 13.~2020. 10. 01.	지순협 강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4명 (지순협 기획팀)
프로젝트 꾸러미(굿즈) 제작	2020. 10. 01.~2020. 10. 24.	지순협 강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4명 (지순협 기획팀)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2020. 9. 25.	온라인 화상회의	5명
참가자 모집	2020. 9. 27.~2020. 10. 04.	-	-
프로그램 안내 및 OT	2020. 10. 10.	온라인 화상회의	10명
민주주의와 청소년 참정권 기본 소양 교육 운영	2020. 10. 17.~2020.10. 24.	온라인 화상회의	26명
정책 발굴 프로젝트 워크숍 활동 운영(문제 발굴, 사례수집, 토론 등)	2020. 10. 31.~2020. 11. 14.	온라인 화상회의& 은평구청	72명
청소년 주도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중간)보고회 운영	2020. 10. 31. 2020. 11. 21.	은평구청	93명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2020. 11. 15.	온라인 화상회의	5명
본회의	코로나로 연기 (내년 3월로 연기)	-	-
사업 평가	2020. 12. 05.~2020. 12. 13.	온라인 화상회의	4명 (지순협 기획팀)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 『유크 Youth Cracy』를 통해 은평구 내 청소년들을 만나며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지역문제 대해 고민하고 자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우면서 지역 문화 활성화,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볼 수 있어 기뻐했다.
-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안에서, 일상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직접 들으면서 향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사례

비교적 적은 인원이 만나는 팀별 워크숍은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했으나,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소양교육은 비대면(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인해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역탐방 등의 외부활동을 많이 진행하지 못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비대면-언택트의 일상화로 인해 이러한 공공 교육시스템의 순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교육자-학습자 간의 유대감이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더욱 '개별화'된 주체성을 체화하고 삶을 '경쟁의 연속'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개별화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 나아가 온 인류가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영역에 대한 관심이나,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이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 사업 추진 일정 연기 및 사업 대상 변경
-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 계획이 연기되면서 사업 추진 대상이 은평구 내 청소년(탈학교청소년포함)에서 청소년 의회 의원 대상으로 축소·운영되었다. 향후 사업 추진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대상에 맞는 적절한 기획으로 확대·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예산 규모 확대
-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보재, 교육, 워크숍 활동이 함께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은평청소년 자치활성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01. 05. ~ 2020. 08. 30.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준비위원회*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네트워크 출범 준비를 위한 팀 회의 및 활동, 정기회의, 임원진회의 진행 ○ 청소년네트워크 정관, 창립선언문 작성 ○ 청소년네트워크 회원 가입 전 '찾아가는 설명회' 자료 준비 ○ 청소년네트워크 창립총회 자료집 제작 ○ 청소년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출범식 기획 및 준비
	<p>*출범준비위원회는 은평구 청소년 자치조직 소속 청소년으로 2019년도에 구성함.</p>	

추진배경

2019년도 7월 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 '한여름밤의 꿈꾸라캠프'에서 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후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을 준비하는 출범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음. 2019년도부터 출범준비위원회는 2020년도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자 활동하였음. 본 사업은 청소년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며, 은평 청소년 참여·자치조직 청소년,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해 은평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관련 영역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함.

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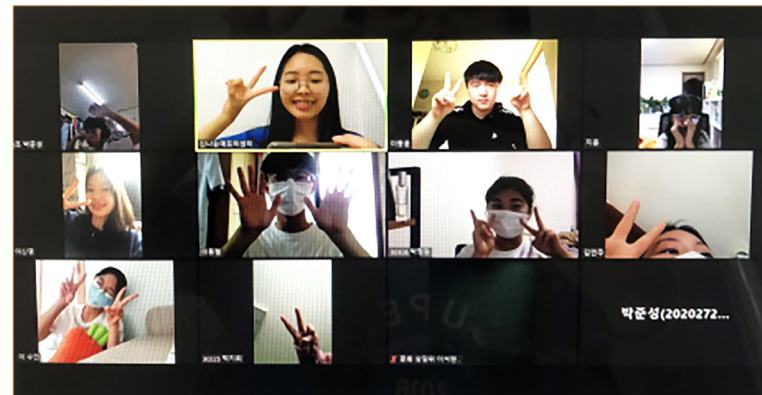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정기회의 (5회) : 팀별활동 공유 및 논의	2020. 01. 14. ~ 2020. 08. 30.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및 온라인 등	70명
기획전략팀 회의 (8회) : 청소년네트워크 정관, 창립 선언문, 창립총회 자료집 구성	2020. 01. 05. ~ 2020. 08. 11.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및 온라인 등	118명
팀회의 (26회) : 행사준비팀 회의 (8회) : 창립총회, 출범식 기획 및 준비, 보도자료 작성	2020. 01. 17. ~ 2020. 08. 1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및 온라인 등	
조직홍보팀 회의 (10회) : 청소년네트워크 찾아가는 설명회 준비	2020. 01. 11. ~ 2020. 05. 23.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및 온라인 등	
임원회의 (2회) : 각 팀별 현황 확인 및 이후 일정 논의	2020. 03. 12. ~ 2020. 07. 19.	카페 및 온라인	9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작년부터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을 위해 달려 온 출범준비위원회 청소년들을 보며, 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청소년네트워크 출범 시기가 늦춰지는 걸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시국은 길어져만 갔다.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출범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를 다양한 상황과 방안을 생각해보며, 논의한 결과 출범은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은 못했지만, 청소년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시작점부터 활동 마무리까지 청소년이 열고 닫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을,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가 출범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권리가 덜 중요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의 권리는 누군가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 권리(자치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네트워크 출범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그 날이 온다면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청소년네트워크 출범 준비를 위해 출범준비위원회는 정기회의, 팀회의 등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였다. 2020년도 청소년네트워크 출범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 청소년 자치조직의 활동도 어려움이 있어 네트워크 출범은 무리가 있을 것임을 은평구 청소년 참여·자치 조직 담당자, 출범준비위원회 청소년들이 논의하여 활동을 정리하였고, 그간의 논의과정과 출범식을 위한 인수인계서를 잘 기록해두었다. 청소년네트워크 출범과 활동이 가능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출범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지금껏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활동들을 이어나 가면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이 피해 받은 가장 큰 부분은 '기회'의 차단이라고 생각된다. 친구를 만날 기회,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 무언가를 시도해 볼 기회 등 안전하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기회를 분산하기보다 거점 혹은 분류별로 묶어서 역할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원기관 역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방법과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관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 학사일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 친환경라이프 아망

갈현청소년센터 '쉽쉽'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추진대상

은평구 청소년
102명

사업내용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활동(흡연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청소년
보호 구역 지정 캠페인 등)

추진배경

-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친환경 조성 활동 필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청소년 주도의 인식개선 문화마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차수	활동인원
청소년 기획단 운영	2020. 1. - 5.	은평구, 갈현청소년센터	5회	11명 (연인원 49명)
대학생(청년) 멘토단 운영	2020. 7. - 12.	은평구, 갈현청소년센터	매월 1회 회의 및 팀 활동 진행시	16명 (연인원 44명)
팀 프로젝트 활동	2020. 4. - 11.	은평구, 갈현청소년센터, 온라인공간	매월 1 ~ 2회	86명 (연인원 986명)
캠페인 활동	2020. 10. - 12.	은평구, 갈현청소년센터	팀별 수시	2,667명
활동발표회 및 자료집 제작	2020. 11. 21.	은평구, 갈현청소년센터, 온라인공간	연 1회	522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활동의 시도로 인해 새롭기도 하였지만, 한 해 내내 청소년과 멘토, 교사, 지도자 모두가 낯설고 어색했던 시간이었다. 온라인 활동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프라인 활동보다 지치고 진행이 더딘 경우도 훨씬 많았다. 익숙했던 환경과 서로의 온기가 매번 그리워지는 순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제대로 한번 밥먹자'는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 했던 청소년들과도 끝내 2020년 다 같이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모두가 함께 다 모아지는 못했다. 부디 2021년에는 함께하는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다 같이 모여 사업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숏구치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행복한 순간을 상상해 본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 시대의 대응으로 온라인에 대한 사업 진행도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피로감도 높다고 생각되어 혁신사업으로 추진되는 많은 온라인 활동들에 대하여 함께 지도자와 교사, 혁신교육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상회의, SNS 캠페인 활동, 온라인 활동발표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자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 그룹(4팀)활동에서 소규모 동아리별 활동(14팀)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대학생 멘토를 동아리별로 한명씩 배정하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은 온라인활동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활동은 학교 등교시 친구들 그리고 소규모 팀별 활동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 시점부터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청소년들과 소규모 활동(10인 이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은평혁신사업으로 참여한 청소년 및 대학생 멘토 중 모범적으로 활동한 대상에게 구청이나 교육청 차원의 격려를 위한 포상이나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경력차원이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넘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치와 활동에 대해 서로가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다양한 장치나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4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걸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최한결

청소년(갈현청소년센터 '침침' 아망위원장)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혁신교육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몰랐다. 평소 친구들에게 활동을 공유 하고 같이하고 자 하는 성격이다. 그러던 와중에 한 친구가 가볍게 할 수 있고 소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던 차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아망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 큰 동기는 없었고 친구가 봉사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수 정예 활동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아망을 참여하게 되었다. 포스터를 보고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소수로 활동하는 거라서 참여했다.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활동을 계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문제인식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청소년들끼리 예산도 편성하고 기획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혁신교육이란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학교에서만 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과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하여 좀 더 확장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공통된 과목, 교실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참여형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지만 그것 또한 학교라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수동적인 교육에서 마을의 인프라가 구성되어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아망을 예로 들자면 은평구 관내 청소년 센터 활동 장소나 다양한 멘토를 제공해주고 활동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고충을 나누고 직접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자세한 예산 계획들은 힘들었지만 대 학생 멘토들이 서포트 해주는 포지션이었다. 이런 활동 성과를 위원들끼리만 나누지 않고 이런 활동 경험에 대한 내용을 학교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소개하며 같이해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었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등)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기존의 교과목 전문 지식이 중심이었다면 혁신교육은 사회참여나 융합적 사고가 연계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치참여 기회를 높여준다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봤을 때는 마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마을은 혁신교육의 필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마을이 혁신교육의 엔진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뀐 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코로나 초기에는 장기화가 될 줄 모르고 다른 공부할 여유가 생기고 놀 시간도 더 생기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몇 번 연기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그런데 등교 연기가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장기화 되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연락도 끊기고 아쉬운 마음이 컸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는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인원수를 맞추느라 굉장히 불편했다. 같이 제작 해야 하는 과제들은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게 무척 어렵고 불편했다.

고2 때는 많이 놀고 영화도 많이 보고 여가생활을 즐겼는데 코로나 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 동선 제한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고 헬스장도 문이

닫히면서 운동도 못하게 되고 정신적 불편함보다 신체적 건강이 걱정되고 답답한 게 컸다.

그래도 최대한 밖에 안 나갔다. 재밌었던 점은 화상회의로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어본 적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학교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교사)의 온라인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교사가 배려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비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수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참여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좋았던 것,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행된 아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도 각자의 의견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도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럽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청소년 삶에 대해 무엇을 지원, 주목해야 하는가?

청소년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친구들이 있지만 안 쓰는 친구들도 많다.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써야 하는 경우(EBS)가 있다. 데이터 지원 사업등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데이터나 통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데스크탑이나 태블릿PC 등의 지원(교육용 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현재는 너무 많은 플랫폼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만 해도 줌도 있고 리모트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로 통일한다면 사용방법에 좀 더 익숙하고 편할 것이라 생각한다.

혁신교육에 대해 제안 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혁신교육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프로그램명이나 참여단체명을 말하게 된다.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은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국한되어있다.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떤 발전을 기대 할 수 있고 각 단체별로 목적이 무엇이고, 혁신교육 자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준다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홍보나 청소년들의 관점에 맞는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참이는 행사의 모든 기획을 청소년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명확해서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신규위원들이 항상 많았다. 그래서 나 또한 관심이 더 갔다.

심리정서

1-7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 시민교육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아자아자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프로그램 '꿈채움'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생명 이끄미 마음컨택 상담센터

내꿈교실 은평교육복지센터

긴급지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⑥

박희정 학부모(실무협의회 위원)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업기간

2020. 03. 31. ~ 2020. 12. 11.

추진대상

은평구 특수학교
초·중등부 1,570명

사업내용

- 특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한 특화된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월별 주제별 그림책 읽기와 책 놀이 활동
- 마을+학교 연계 독서교육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추진배경

- 독서교육 취약대상인 특수학교(학급) 아동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성과. (*2018년 은평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대영학교 우수사례상 수상)
- 그림책 읽기와 책 놀이 활동은 인성·심리·정서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훌륭한 매개체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지원 역할 효과.
- 마을의 그림책 활동가, 공공도서관, 학교가 연계하여 독서교육에서 출발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대영학교 초등부 독서프로그램	2020. 06. 04. ~ 2020. 12. 11.	학급 교실	1,004명
대영학교 중등부 독서프로그램	2020. 06. 05. ~ 2020. 12. 11.	학급 교실	566명
온라인 영상수업 콘텐츠 및 책 놀이 키트 제작	사업 기간 내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그림책 읽기와 책 놀이 활동의 최고의 효과는 책으로 말을 걸고, 슬며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다는 점이다.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프로그램 시작 시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책 읽기 활동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 난 걸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다시 살아났고 안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차곡차곡 쌓인 책 읽기 습관과 경험의 놀라운 힘을 몸소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다. 그림책 속 세상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사람, 동물, 자연, 환경,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온갖 주제가 짧은 글과 인상적인 그림으로 펼쳐진다. 초등부는 4월 봄, 5월 선생님, 6월 친구, 7월 여름, 9월 음식, 10

월 가을, 11월 동물, 12월 겨울을 주제로 삼았다. 중등부의 경우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형식이었으나,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전환하여 마을+학교+도서관 연계 '마을 속의 나'를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싹틔웠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그림책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림이 아름답고 빼어난 책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동서양의 예술 세계-예술이 좋아를 기획하여 서양의 추상화가 몬드리안과 조선 시대의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 이야기를 읽고, 유명화가의 그림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재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 각자는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잠재된 꿈과 끼를 발견했으리라 본다.

코로나19 대응사례

특수 아동·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진행은 어느덧 4년에 접어들었다. 강사진의 프로그램 경험과 노하우는 그 시간만큼 차곡차곡 쌓였고 올 한해 그림책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아이들을 상상하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사업은 6월에야 시작되었다. 계획되었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취소, 보류 혹은 연기가 되었다. 마을 강사는 활동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어 어서 빨리 학생들을 만날 날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사업이 시작되어서는 등교 인원의 제한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었고, 주제별 온라인 수업영상콘텐츠와 책 놀이 키트를 제작 배부하여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버린 특수 아
동·청소년들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큰 안
타까움을 자아냈다. 가정 돌봄의 한계는 더
욱 컸고, 아이들은 지속적인 학습 자극과 훈
련, 교감이 없이 그대로 퇴행해버렸다. 특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의 진
행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생각과 아이디어, 많은 이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비
대면 시대에 특수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인 발달을 도모할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행
되었으면 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 독서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절
감한 것 같다. 2021년에는 본 프로그램이 더
욱 확장되어 많은 아이들이 책 속 세상을 보
며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과 흥미의 영역을
확장하여 더욱 큰 세상으로 도약할 꿈과 자
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미디어 시민교육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사업기간

2020.10.14. ~ 2020.12.24.

추진대상

은평구 관내 초등학교

사업내용

초등 대상 성인지 주제의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일상의 미디어 속 감춰진 편견과 차별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필요.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프로그램 기획 구성	2020. 9.21. ~ 10.5.	기획회의 (4회)	미디어전문가 4명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2020.10.9. ~ 10.20.	촬영 편집 (4회)	미디어전문가 4명
프로그램 실행준비	2020.10.26. ~ 11.4.	강사간담회 (2회)	미디어전문가 8명
나답게 nadaum 프로그램 진행	2020.11.10. ~ 12.16.	대면수업 (30회) 비대면수업 (53회)	미디어전문가 8명 참여학생 2,324 명
사업평가	2020. 12. 21.	평가회의 (1회)	미디어전문가 8명

사업을 마치며

나답게 nadau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
었다. 2,324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약 91%
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0. 12. 16. 시행)
향후 초등대상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활동 재점검을 통해 대상에 맞는 교
육자료를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자아자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01. ~ 12.	은평구 중고등학생 1,026명	중학생 대상 자살·자해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추진배경

관내 자살·자해 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1차 강사 간담회 실시	2020. 07. 03.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9명
아(我)자(自)!아자! 연천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 08. 07. ~ 2020. 08. 14.	연천중학교	20명
아(我)자(自)!아자! 대성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 08. 12. ~ 2020. 08. 14.	대성중학교	48명
아(我)자(自)!아자! 상신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 10. 05. ~ 2020. 10. 08.	상신중학교	32명
아(我)자(自)!아자! 신도중학교 예방교육	2020. 10. 13.	신도중학교	355명
아(我)자(自)!아자! 송실중학교 예방교육	2020. 10. 14.	송실중학교	136명
아(我)자(自)!아자! 예일여자중학교 예방교육	2020. 10. 23.	예일여자중학교	205명
아(我)자(自)!아자! 불광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10. 26. ~ 2020.10. 29.	불광중학교	40명
아(我)자(自)!아자! 홍보 동영상 제작	2020.11. 05. ~ 2020.11. 17.	-	러닝타임 120초
아(我)자(自)!아자! 영락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 10. 26. ~ 2020. 10. 29.	영락중학교	40명
아(我)자(自)!아자! 예일여자중학교 집단프로그램	2020. 10. 29 ~ 2020. 11. 02	예일여자중학교	64명
아(我)자(自)!아자! 예방교육영상 제작	2020. 12. 23.	-	러닝타임 40분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코로나19로 인해 예방교육과 집단상담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우울증상 및 가정 내 갈등의 증가로 대집단의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정서를 돌아볼 수 있는 집단상담의 운영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학교 문의가 많아 방송실 강의로 변경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자살·자해 예방 방송 콘텐츠 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구매로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만남에 대한 욕구가 늘었을 것이다. 방역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소규모로 지속적인 집단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소규모 및 대규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라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인원제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 선생님 포함 5인 이하 프로그램은 진행 가능.



대안교육프로그램 ‘꿈채움’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기간

2020. 10. ~ 2020. 12.

추진대상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사업내용

학업중단(위기)청소년 대상
홍보동영상(샌드아트) 및
책자 제작

추진배경

코로나19로 휴관이 지속되어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전 숙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 및 책자 제작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	2020. 10. 21. ~ 2020. 10. 29.	네이버 폼	100명
꿈채움 홍보영상(샌드아트) 제작	2020.11.26. ~ 2020. 12. 07.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	2020.12.22. ~ 2020. 12. 28.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 학업중단위기 청소년들과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학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연계가 거의 없거나 소수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제한과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은평구 내 학교에서 자퇴 연계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이 어려워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해볼 수 있는 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를 대비한 상담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내의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다가 학교를 가는 것이 제한되고 가정에서만 주로 생활하다보니 가족 간의 갈등도 빈번해지고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 호소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가족과 함께 장기적인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코로나블루 대응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생명 이끄미

마음컨택 상담센터

사업기간

2020. 04. 06.~2020. 12. 11.

추진대상

은평구 고등학교 100학급
(약 2,000명)

사업내용

고등학교 학급단위 생명존중
교육 및 상담 지원

추진배경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

(2018 여가부 청소년통계)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생명 이끄미 계획 수립	2020. 4.		
코로나19 대응 수정계획 수립	2020. 7.		
생명 이끄미 학급교육	2020. 7.~12.	100학급 (온라인 교육 포함)	약 2,000명
개인 심리지원	2020. 7.~12.	140회	140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생명존중교육은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뤄지고 있으나 높아져만 가는 자해, 자살률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라는 전례없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더욱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보다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요구 되어졌다. 그럼에도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만나거나 프로그램 활동에서 만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희망의 빛 한줄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여전히 희망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 대응사례

- 학급단위 프로그램의 온라인 영상 제작 및 활동지 제작
- 온라인 강의 톨을 활용한 실시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긴급지원 온라인 오픈채팅방 운영
- 학급단위 지원에서 1:1 심층지원으로의 변화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 집콕생활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지원 필요
- 관계단절에 따른 고립과 우울감의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내꿈교실

은평교육복지센터

사업기간

2020. 03. 01 ~ 12. 31.

추진대상

○일반고 9개교 학교
○온라인 수업지원
참여 초등학생

사업내용

학교 맞춤형 소규모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학교 복귀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연합 사업의 일환으로
은평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 되었음.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사전교육 및 발대식)	2020. 04.	은평교육복지센터 각 학교	34명
일반고 학교복지사업 담당자 협의회 (협의회 9회, 슈퍼비전 4회)	2020. 04. ~ 12.	은평교육복지센터	9명
또래학습 멘토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24회기)	2020. 07. ~ 12.	은평교육복지센터 외	80명
온라인 수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강사교육 2회, 프로그램 18회기)	2020. 05. ~ 08.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외	75명
제비둥지 프로그램 진행	2020. 11. ~ 12.	은평교육복지센터	10명
사업평가	2020. 12.	-	-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사업 계획과 달리 2020년 사상 초유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처음 겪는 상황에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지역기관들은 휴관 및 재택근무 비대면으로 전환될 때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임과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방역물품을 전달하러 학생들의 가정방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온라인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욕구가 파악되었다. 이에 기존의 사업을 축소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 되었으며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력을 발휘 해야만 했다. 그 무엇보다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변수가 많아서 힘든 한해였지만 전국 최초로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사각지대의 어린이·청소년을 돌 볼 수 있었고 지역과 학교가 협업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위기 상황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 해였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들은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균형있는 식사가 어렵고 방치되기 쉬워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도 더 증폭되어 가정 내 갈등도 심화되어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아지는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위에서 설명 한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응으로 모든 사업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인원을 축소하고 여러 회기를 통해 사업을 진행 함과 동시에 사각지대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가정방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온라인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욕구가 파악되었다. 이에 지역기관 내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마을 강사교육 및 지역 구립 기관 9곳을 연계하여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 인솔, 귀가지원과 온라인 학습 및 돌봄을 제공하였다.

본 센터는 철저한 방역 하에 일대일 대면 사례관리,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비대면 멘토링,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생활, 학습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원 세부내용

시간	내용	담당 및 역할	장소
09:00~09:30	가정에서 기관으로 동행하여 인솔 (이동 지원 : 차량 및 도보)		
09:40~12:00	○ 코로나 감염증 예방교육 실시 (참여기간 중 1회) ○ 원격수업 지원 및 학습지도	각 마을강사 및 기관 실무자 (출석 체크 이동지원, 원격 수업 지원)	관내 9개 구립기관 (각 학교에 인근 거점 구립기관 및 은평교육복지센터)
13: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	담당자 동행하여 귀가 (이동 지원 : 차량 및 도보)		

위기 상황에서 본 센터는 은평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돌봄 및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은 2020년 하반기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촘촘한 멘토링 운영'의 롤모델이 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원 모형은 타 기관 및 지역의 모델로 시도되고 있다.

긴급지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09. 01 ~ 12. 31.

추진대상

은빛초, 구산초, 불광초,
신사초, 선정국제관광고,
충암고

사업내용

대상의 조건을 넘어서는
심리지원, 개인, 가족상담

추진배경

코로나블루로 인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 발생이
더욱 심화되어 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홍보, 기관연계	9월~10월	지역기관, 본페드, 학교 등	17
지역단위 기획회의와 사례별 솔루션회의	9월~10월	지역기관, 본페드, 학교 등	35
상담지원	10월~12월	은평구관내 상담기관	170
사례공유회, 평가	12월	마을기관, 학교	14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시대에 사회적 거리로 인해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적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 지원하게 되었던 건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학교에서 지원의뢰가 오면 지역기관과 연계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솔루션회의를 진행하였다. 내담자가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마을기관을 연계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보다 지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업 담당자로서 마을과 학교를 잇는 역할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장점은 복지대상자의 기준으로 지원하지 않고 누구든 가능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기준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는 것이 좋았다. 아동청소년이 이 한 번의 지원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마을의 상담기관을 통해서 따뜻했던 기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도 하나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이 사업은 코로나시대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정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지원하여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가 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학력격차는 학교뉴스에서 매번 등장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학력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코로나를 통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력의 격차보다 급식이 안되면서 밥을 굶고 방치되고 고립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작은 단위의 관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지원이나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는 것, 작은단위로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 큰 단위의 네트워크는 온라인으로 만나도 될 것 같다.

작은 단위의 만남으로 좀 더 긴밀하고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방학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사업의 속성상 모든 사업이 12월로 마감하고 다음 사업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방학기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담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있지만 그전에 기본적인 의식주의 결핍해결이 급한 경우도 있으므로 좀더 다각적이며 사례별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좋겠다. 또래상담이나 집단활동의 방식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걸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박희정

학부모(실무협의회 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선생님 추천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혁신교육지구에 돌봄분과, 청소년자치분과, 학부모분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인 연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개인의 성장과 함께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을 담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민관학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동등한 협치의 재구성을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은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등)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톱니같이 교육공동체 관계로 잘 맞물려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뀐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멈춤이란 상황에서도 학부모로서 멈출 수 없었던 양육과 교육의 피로감이 증폭되었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긍정의 시야로 다시 준비하고 시대의 큰 변화를 알아가며 다음을 위해 무엇이든 준비하려는 마음이

짐이 중요 했던 거 같습니다.

**참여하시면서 생각 나는 것이 있다면? 좋았던 것 인상적
이었던 것 등을 말씀해주세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축제, 동아리, 워크숍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현장들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준비하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미소를 만나고 그들의 성장에 응원을 보낼 수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청소년 삶에 대해 무엇을
지원, 주목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동안 교사분들의 연구와 협업, 피로도와 업무량의 증가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학교 밖 참여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금융, 기후환경, 진로, 진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독창적으로 교육할 강사들을 양성하고, 마을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찾아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러운 마을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으며 어디에서든 우리 아이들이 받고 싶은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클릭 한번, 발걸음 한번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한 방향으로 획일화 시키거나 서열이 주어지는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어른의 요구와 경험의 잣대에서 계획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며, 진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 발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 대해 제안 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을교육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공간 발굴과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인적, 물적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교육과정내의 업무만으로도 피로도를 느끼는 학교에 무엇을 더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혁신교육은 마을안에서 언제든지 학교와 협업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에서 각각의 자원으로 혁신을 고민하고 협력과 융합의 톱니바퀴를 맞추어 나갈 수만 있다면 혁신교육의 신뢰를 증가 시켜 줄거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은 내가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교교과과정과 마을교육이 선택적인 이수가 가능하고 진학과 입시에 반영도 될 수 있다면, 지금의 경쟁과 서열의 교육이 아닌 공동체 감수성을 회복하고 자율적인 운영주체로 성장하는데 더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혁신 교육은 청소년 모두가 차별 없이 마을과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이기를 바래 봅니다.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1-6

교육적상상_교사상상

교육적상상_청소년상상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동아리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역량강화

민간네트워크 지원

제4회 은평혁신교육축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지원센터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⑥

김연미 학부모(학부모 위원)

교육적상상_교사상상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추진대상	사업내용
2020. 10. 19. ~ 2020. 11. 12.	은평구 관내 초·중·고 교사 53개학교 82명 초-26개 학교/ 중-18개학교/ 고-9개학교 참석	○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 콘텐츠사업의 2020년 현황공유 ○ 2021년도 방향과 구체적 대안 모색 ○ 향후 사업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안

추진배경

코로나시대의 마을과 학교의 연계방향 모색.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사업과 활동의 대안 마련.

추진내용

날짜	진행내용
10/19~10/23	○은평구청 마을학교팀 공문발송 ○장소예약, 케이터링예약등
10/26~10/28	그룹핑 완료, 진행자 섭외, 참석자 문자안내
11/3(화)	13시 1회 : 초등 5지구 교감 간담회
	15시 2회 : 초등 5지구 교사 간담회
11/4(수)	13시 3회 : 초등 6,7지구 교감 간담회
	15시 4회 : 초등 6지구 교사 간담회
11/5(목)	15시 5회 : 초등 7지구 교사 간담회
11/9(월)	13시 6회 : 중등 3,5,6지구 교감 간담회
	15시 7회 : 중등 5지구 교사 간담회
11/10(화)	15시 8회 : 중등 3,6지구 교사 간담회
11/12(목)	13시 9회 : 고등 2,3지구 교감 간담회
	15시 10회 : 고등 2,3지구 교사 간담회

추진내용

학교급	날짜	시간	학교	참여인원	
초등학교 26 학교	11/3	13시	역촌초, 응암초, 서신초, 수색초, 신사초, 연광초, 연신초, 은빛초	8	
		15시	역촌초, 연은초, 응암초, 충암초, 서신초, 상신초, 신사초, 증산초	8	
	11/4	13시	은명초, 은평초, 선일초, 연천초, 은빛초, 불광초, 녹번초	7	
		15시	구현초, 대은초, 수리초, 불광초, 어울초, 은명초, 은평초, 갈현초, 상신초, 선일초	10	
	11/5	15시	은빛초(2인), 연신초, 연광초, 은진초, 연천초, 상신초	7	
중학교 18 학교	11/9	13시	진관중, 불광중, 연신중, 선일여중, 대성중, 예일여중, 선정중, 은평중, 덕산중	9	
		15시	진관중, 연천중, 불광중, 연신중, 선일여중, 대성중, 선정중, 예일여중, 상신중, 신도중	10	
	11/10	15시	상신중, 연서중, 송실중, 은평중, 구산중, 덕산중, 영락중, 충암중, 상신중	9	
고등학교 9 학교	11/12	13시	송실고, 충암고, 은평고, 대성고, 선일여고, 신도고	6	
		15시	송실고(2인), 충암고, 동명여고, 진관고, 대성고, 선일여고, 선정고	8	
초-26학교/중-18학교/고-9학교참석				합계	82명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초·중·고 급별 교사와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사업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향후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방향을
모색하여 어린이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
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사회적 변화와 상황에 대한 교육과 활동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육자료 개발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로 민관학네트워크활성화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교육적상상_청소년상상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09.~ 11.

추진대상

은평구 관내 재학 중
또는 거주 중인 청소년

사업내용

방구석 창의교실 &
은평핫플레이스 소개

추진배경

○ 방구석 창의교실

해보고 싶은 과학실험·만들기를 선정하고 신청하여 필요 물품을
지원받아 집에서 활동한 후, 활동 소개 및 사진을 제출.

○ 은평 핫플레이스 소개

예전에 가보았거나 가보고 싶은 은평구 내의 핫플레이스를 선정하고
사진 및 그림을 첨부하여 접수양식에 맞추어 제출.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방구석 창의교실	2020.09-10	각 가정집, 학교	60
방구석 창의교실 2차	2020.10-11	각 가정집, 학교	28
은평핫플레이스 소개	2020.09-10	각 가정집	14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방구석 창의교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과학실험·만들기·창의체험을 신청하고 물품을 지원받아 가정·학교에서 활동한 후, 활동 소개 및 느낀 점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구석 창의교실은 신청자가 무척 많았다. 1차 신청으로 96명이 신청하여 총 60명을 지원하였고, 2차 추가 신청으로 36명이 신청하여 총 28명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창의체험을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은평핫플레이스 소개

직접 방문은 할 수 없지만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며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날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사연이 많았다. 아쉬웠던 점은 방구석 창의교실과 같은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었다. 은평구 내 다양한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맵 제작을 목표로 하였으나 접수자가 방구석 창의교실만큼 많지 않았고 중복되는 장소가 있어 맵 제작은 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대응사례

○방구석 창의교실

초기 사업 계획은 마을강사를 섭외하여 물품 지원과 함께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단체 모임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변경되었다. 필요 물품을 각 가정으로 지원하여 활동 사진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2차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은평핫플레이스 소개

초기의 사업 계획은 은평구 내 가보고 싶었던 곳이나 가봤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고 그 장소에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경험 및 추억을 소개하고 사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혁신교육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방구석 창의교실이 같은 각 가정에서 또는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주제로 지원해야 하며 비대면 교육 방법에 맞추어 온라인학습교육, 온라인회의 등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더라도 홍보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아직 많지 않다. 각 각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 보다 혁신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동아리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7. ~ 2020. 12.

추진대상

서울은진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 외 17개 동아리

사업내용

학부모 소규모
자치활동 지원

추진배경

- 코로나시대에 교육주체인 학부모 활동 지원.
- 자발적인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부모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기반 마련.

추진내용

동아리명	활동인원
경제와 노는 엄마	7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부모생활	10
슬기로운 온택트	6
디지털아트랑 놀기	5
은하수	13
Hi, High 진관	10
송실고 학부모 독서토론회	19
토닥토닥 맘스맘	12
진관 프랑스 자수 동아리	10
엄행가행	10
슬기로운 은진 mom's	8
엄마가 만드는 세상	10
은빛울림	5
대성맘플렉스	10
웃는 엄마	4
거북맘들의 공공칠빵	7
힐링 맘(心+Mom)	10
엄마새 하모니	12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토론의 일상화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어디에서건 명확히 발표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체득된다면 이것이 곧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지리라 생각 된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 동아리를 통해 경제도 배우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수 있어서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 시대에 원격학습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온라인시대에 맞춘 다양한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면 좋겠다.



교육적상상_학부모상상_학부모역량강화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11.5.~12.24.

추진대상

심화교육 희망
학부모 10명

사업내용

회복적 정의 피·가해 대화
모임 진행자 훈련 심화과정

추진배경

- 지역 내 갈등 조정 진행자로 활동하며 학부모 역할 확대.
-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을 중립적 3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 역량 강화 심화교육.

추진내용

구분	강의주제	내용
1강 11/5, 10시	회복적정의 현장이야기	-개회와 과정 안내 -회복적정의 실천 현장 이야기
2강 11/12, 10시	피해와 회복, 가해와 책임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는 무엇이고, 가해의 자발적 책임은 무엇인가?
3강 11/19, 10시	대화모임 설계하기 1	-대화모임 설계와 실습
4강 11/26, 10시	대화모임 설계하기 2	-대화모임 설계와 실습
5강 11/27, 10시	대화모임 진행하기 1	-예비 조정
6강 12/3, 10시	대화모임 진행하기 2	-본 조정
7강 12/10, 10시	대화 진행자의 의사소통 1	-중립적 3자로 듣고 말하기
8강 12/17, 10시	대화 진행자의 의사소통 2	-중립적 3자로 듣고 말하기
9강 12/21, 10시	종합계획	-대화모임 설계 종합
10강 12/24, 10시	종합실습	-종합실습
11강 12/24, 14시	종합실습	-종합실습 -폐회와 마무리

사업을 마치며

총평

심화 교육을 통해 관내 갈등조정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역기관 및 학교와 연계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부모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역 갈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네트워크 지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5. ~ 2020. 12.

추진대상

은평구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외 5개 단체

사업내용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배경

- 교육주체인 지역 민간 네트워크의 참여확대.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 연계 및 실천 방안 모색의 필요성.

추진내용

단체명	운영 기간	주요 내용	연인원(명)
은평구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2020.9.25.~12.27.	클레이코칭 연수,교재교구 개발	102
은평마을돌봄네트워크	2020.10.~12.29.	마을돌봄생태계 조성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성	178
은평마을작은도서관네트워크	2020.8.4.~10.26.	제5회 은평ON 북 페스티벌 영상 지원	2,400
(사)은평상상	2020.9.8.~12.04.	제5회 은평상상콘퍼런스	5,772
1.5도 기후시민 교육연대	2020.7.1.~12.30.	기후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성, 교구개발	102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2020.6.1.~2.24.	아동·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대회, 워크숍	148
계			8,702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전년도 보다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단체를 지원했으며 기후위기, 돌봄, 진로교육 등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의 인프라가 확대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시대에 네트워크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라인 행사 전환,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등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코로나 시대에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습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소규모 단체 지원의 분야는 다양해졌으나 혁신교육지구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은평마을돌봄네트워크



은평마을작은도서관네트워크



(사)은평상상



1.5도 기후시민 교육연대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제4회 은평혁신교육축제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사업기간

2020. 08. 28.~2020. 12.

추진대상

은평구 청소년
2000여명

사업내용

온라인콘서트,
슬기로운방콕생활,
혁신교육사업결과발표회

추진배경

- 2020 은평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알림.
-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콘서트.
- 혁신교육지구 사업단체 동영상 촬영하여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 및 결과발표회.

추진내용

세부내용	활동일자	장소	활동인원
온라인콘서트	2020. 11. 17.	은평문화예술회관	50명
슬기로운방콕생활	2020. 09. ~ 2020. 11.	각 가정 및 실내	31명
혁신교육사업 결과발표회	2020. 12.	각 사업 단체	14개 단체

사업을 마치며

진행하면서 들었던 소감

온라인으로 진행되서 아쉬웠지만, 밖에서 찍은게 더 좋았다.
흡족하고 중간중간 아쉬웠던건 장소랑 준비였지만 이미 겪어봤으니까
내년엔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사례

모든 축제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완화를 기다리다 늦게
온라인 전환이 된 것이 시간을 촉박하게 했
고 결과물들이 슬기로운 방콕생활, 온라인콘
서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한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후엔 체계적으로 진행이됐으면 좋
겠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주체별 참여를 확대 시켰으면 좋겠다. 복합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축제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축제는 대상을 청소년에 너무 국한하지 말
고 학부모나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갔으면 좋겠다.

기타 바라는 것, 제안에 대한 의견

하루 대공연장 대여해서 사용했는데 하루로는 촉박했다 생각한다.
녹화하면서 리허설을 하다보니 힘들었다. 리허설 날짜 따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직접 촬영해서 받은것과 공연장에서 찍은거에 대한 해상도가 많이 다르다.
많은팀들이 많이 녹화했으면 좋겠다. 편집에서 조금 부족하고 라이브는 좀 미숙한게 있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은평의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한결음씩 내딛고 계신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주체 여섯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공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김연미

학부모(학부모 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얘기는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혁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혁신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했다.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위원을 뽑는데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시작하게 되었다.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학부모들끼리 새로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항상 학교나 정부 탓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육문화 운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문화운동이라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소비자로서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교육공동체로 함께 성장하자고 생각했다. 일시적인 지원을 받아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평의 교육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를 통해 공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앞으로 혁신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활발해지니 혁신교육의 필요성을 더 체감하였다.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로 연결되려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또한 협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은 협력과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관학이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혁신교육이라 생각한다.

혁신교육에서 민관학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은평은 현재 어떠한가요?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자신의 역할이 뭔지 잘 몰랐다. 민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민관학거버넌스에서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평에서의 거버넌스는 지역 교과서를 개발한 것이 인상 깊다. 초등 4학년까지 확대가 되면서 은평은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역화 교과서 개발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은평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언젠가는 떠날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지역 마을 공동체를 접하면서 은평구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한 것이 민관학거버넌스의 빛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별별은평이라는 프로그램은 은평의 역사 문화와 연관된 사업이라서 매우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나중에는 이윤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 보드 게임이나 마을탐방길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매우 인상 깊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었다. 결과물들이 매우 잘 만들어 졌다. 학부모 간담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못하긴 했지만 초등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다수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관,학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항상 학교와만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구청장과 교육청장을 만나고 학부모의 니즈를 말할 수 있던 것만으로도 학부모 간담회가 의미 있었다.

혁신교육과 마을(사람, 공간등)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가 교육공동체인데 각자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학교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자치구가 마련해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몰랐다. 항상 받기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다. 혁신교육과 마을은 배움이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까지 확장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교육담당 공무원과 만날 때는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만나야 하고 결과물도 회의를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데 속도감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속도에 못 맞추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우리는 생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 속도를 인정해 주면 좀 더 마을과의 관계가 원활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다려주는 관계, 동반과 협력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속도가 다름에 답답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자꾸 불신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줘야 한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다려주지 못하다 보니 불신이 쌓이고 우리가 개선점을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나 관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우리는 생업에 있음에도 어렵게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목적이고 수단인지 모르겠다. 협력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뀐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일여중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었다. 그것을 신청을 하여 학부모들이 해가 바뀌면 임원들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신입 학부모들이 있어서 12명 정도를 모아서 동아리 사업을 함께 하였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예일여중은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끼리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부모들의 즐거운 생활 등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학부모중에서도 엄마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엄마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달에 2번, 총 7-8번 만났는데 가을에 뜻깊은 사업을 했었다. 100만원을 지원받아 강사를 초빙하여 만들기도 하고 힐링프로그램도 하였는데 다른 학교들 보면 학부모회가 이름만 올려져 있고 교류가 없는데 그래도 예일은 학부모 동아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거 같다. 프랑스자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화분만드는 것도 하였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강의도 듣고 만들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니 힐링이 많이 되었다. 이 상황은 길게 봐야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또한 자치인 것이다. 학부모 사업도 학부모 자치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 오히려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 같은 경우 학원도 중도에 가지 못했다. 학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 내신 정도야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학원을 못가게 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 나니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온라인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미디어 발달에 최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침대 속에서 수업을 듣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 생활 리듬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요즘 성적을 보면 성적 편차가 훨씬 커진 경향이 있다. 생활 패턴을 지키는 친구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잘 하게 되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성적이 확 떨어지는 거 같다. 아이들의 진로같은 것도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같다.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 가는 거 같다. 좋게 본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학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는 2020년이 아니었나 싶다.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청소년 삶에 대해 무엇을 지원, 주목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건강성을 회복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건강성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게임에 빠지거나 모두가 유튜브가 되고 싶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변화는 좋지 않다고 본다. 청소년들의 건강성을 본다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마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아이들이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작년에 방구석창의교실로 과학교구를 지원한다든지 핫플레이스 소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소소하게 즐겁게 건강성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등을 많이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놀이도 하면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학교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나 마을에서 지원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마들도 코로나 상

황이 이어지면서 아이들과의 체험활동을 많이 알아본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에도 문화예술과 진로, 창의체험, 안전놀이를 많이 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치구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내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 가능한 목표를 만들도록 해주어야 한다.

혁신교육에 대해 제안 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의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서 교육 환경을 잘 구축해달라 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리더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시켰으면 좋겠다. 은평의 청년리더들의 모임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과 청년리더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은평 혁신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청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2015년부터 했지만 은평 혁신교육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혁신교육 관계자들끼리 자주 만나 협력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신뢰속에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우리만의 은평 혁신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각자의 역할을 주체성있게 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하는게 중요하다. 자칫하면 교육공동체로써 변화해야 하는데 교육공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1-2

20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점운영사항
2021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비전과 주요사업계획

답는글

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202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중점 운영사항

20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점 운영 사항

- 어린이 청소년 성장 지원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마을결합형학교(일반학교-중점학교-혁신학교) 발전, 성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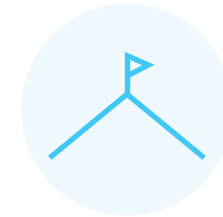
2단계 운영 방향	2021 사업 내용
학교-마을의 협력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지구가 중심이 되어 학생 안전망 역할 수행 ○ 마을결합형학교(일반학교-중점학교-혁신학교) 발전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담도담 마을학교' 운영 ○ 마을 순환 경제 등 생태전환교육과 혁신교육지구 연계 강화
민관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주체적 성장 지원 중심의 민관학거버넌스 운영 ○ '우리마을 혁신교육토론회' 등 시민, 학부모 의견 수렴 확대 ○ 학생 눈높이 맞는 학교 및 동단위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동주민센터, 단체 등의 학생생활 밀착형 협력 확대
학교 내외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쉽고 배움을 위한 방과후활동 생태계 조성 ○ 학교 및 지역 청소년 방과후 프로젝트 활동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마을결합형 청소년 공간 도입, 1동 1청소년문화의 집 구축 ○ 마을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지원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에서 학생 '마을살이' 이해 교원 연수 추진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성장지원단 운영 ○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 종합 홈페이지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버스 광고(상반기),혁신교육콘퍼런스(하반기) 등

2021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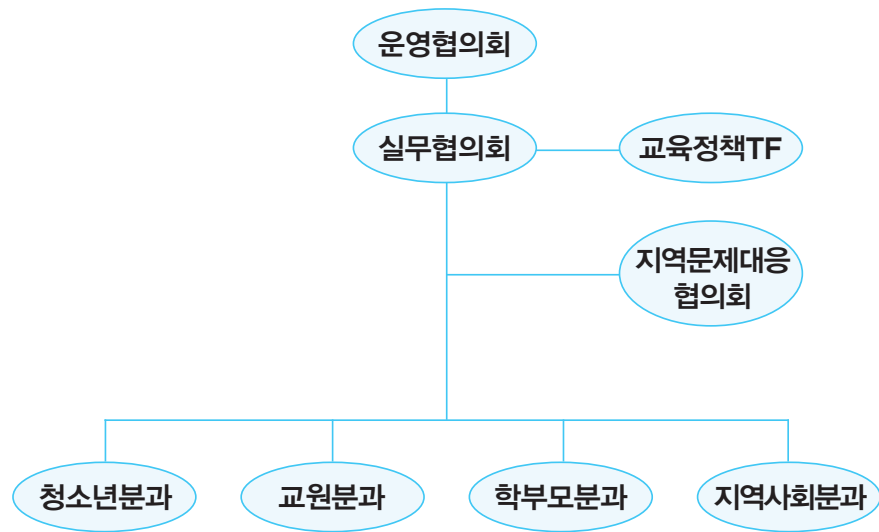
비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은평교육공동체



목표

민관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
어린이·청소년 성장을 돕는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내실화



영역	내용		
민관학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은평형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동 거버넌스 포함)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주체별 혁신 사업구현
어린이· 청소년 활동	자치	청소년 친환경 라이프 '아망'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은평 청소년 자치활성화	관내 자치조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진로	은평대전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학과탐색
		오감체험 진로팡팡	중학교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직업체험박람회
		혁신가와 진로체험	서울혁신파크 투어 및 혁신가 체험
		청소년 이노베이션로드	혁신사업 홍보단 / 미디어 공개방송
	성장지원	마을배움터 운영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배움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특수학교 학생 대상 독서를 통한 성장 지원
마을-학교 결합형 교육과정 내실화	은혁이가 들려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		QR 코드 활용 퀴즈 등을 통한 마을탐방
	마을누림프로젝트		마을결합형 프로젝트(마을탐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633마을결합형전환기		초6, 중3, 고3 급별 융합프로그램
	(교)마을결합형교육과정		학교선택제 마을결합형교육과정(생태전환교육 포함)
	(교)마을결합형중점학교		학교 중심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대응	심리정서	(교)상담멘토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지원
		아자아자	중·고등학교 자살자해 예방교육
		학업중단 숙려제'꿈채움'	학업중단숙려제연계 학교적응 프로젝트
	교육격차 해소	은혁이와 함께 하는 원격수업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0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북적북적해야 할 청소년센터, 도서관 심지어 학교까지 감염 위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고 연초 계획되었던 프로그램들은 연기, 취소되었습니다. 그나마 조심스럽게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운영형태가 바뀌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조희연교육감과 (고)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교육도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혁신교육지구가 전면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공교육을 혁신하자, 가르침이 배움으로 연결되고 삶과 삶이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마을교육,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되어 현재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교육주체로 성장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 역시 '배움과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로 비전을 확대하면서

5년 동안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 해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를 위해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등 거버넌스 형태도 바뀌었고,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은평은 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지구였고, 이제 마을 교육의 안정화와 함께 교육자치의 물꼬를 트는 한해로 만들어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니?’

학교 문이 닫히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교육환경은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와이파이의 단순 환경부터 온라인 접속, 수업 진도와 과제까지 자기 주도 능력의 차이, 돌봄 환경의 차이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지원하여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업을 챙기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온라인으로 원격학습지원을 하였습니다. 은평교육복지센터가 학교지역복지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을 찾고, 공공기관이 소규모 대면을 위한 공간을 개방하고, 교육콘텐츠 강사들을 통해 3주간 운영했습니다. 8년의 시간 속에 쌓인 은평의 민관학 협능력과 마을교육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규모대면 교육을 전제로 '은혁이와 배우자'라는 마을배움터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강사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소규모로 만났습니다. 교사 간담회를 10회 이상 진행하여 학교의 상황, 교사들의 고민, 마을의 역할을 공유했고 학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린이의 삶을 지원한 것입니다. 구청, 교육지원청, 마을 강사, 중간기관들, 학부모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위기속에서도 혁신교육사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실시간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1:1 전공상담을 진행한 은평대전,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소규모단위로 전환하여 지역 유해 환경을 찾아내고 유해 행위를 정화하는 활동을 한 갈현청소년

센터 쉽, 18개 중학교에서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한 도음협동조합의 진로체험 팡팡 등 마을기관들이 학교, 교사, 청소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2021년은 또 다른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날 것인가,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을은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 삶을 지원할 것인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엇을 배울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교육에 대한 정보는 넘치고 있는 지금, 은평은 진짜 혁신교육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협력과 참여,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실천은 교육자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은평구,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우리가 꿈꾸는 혁신교육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즐겁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2020 은평혁신교육지구 결과보고서

학교와 마을, 온(On)택트로 만나다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발행인 | 이미경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50 은평마을속학교
(롯데몰 은평점 앞 승객대기동 1)

홈페이지 | <https://www.epafterschool.com>

E-mail | epsmiletown@daum.net

대표번호 | 02-351-3099

팩스번호 | 02-305-1199

편집 및 디자인 | 권순미디자인